



2013년 1월 28일(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12월중 내구재 주문 예상외 상회
- 2) 12월중 미결주택 매매건수 하락
- 3) 미의회의 부채한도 한시적 연기 법안 통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저하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태국정부,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발표
- 2) 일본정부, 보잉787 도입전 안전규제 완화 구설수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하버드大 경영대학원, MBA 랭킹 1위 등극
- 2) 도요타 자동차, 2012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등극
- 3) 삼성, 애플과의 격차 축소 성공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12월중 내구재 주문 예상의 상회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미상부무는 지난해 12월중 내구재 주문이 4.6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 2% 상승을 웃도는 기록으로 이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판매 개선과 주택 가격 반등에 따른 내구재 주문이 증가했기 때문
 - 한편, 지난해 11월중 내구재 주문은 종전 0.7%에서 0.8% 상승으로 상향 조정됨
 - 또한 변동성이 큰 운송재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1.3% 올라, 시장 전망치 0.8%를 상회
-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문제에서 의회가 일부 사항에 합의했고, 해외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상승하고 투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

2) 12월중 미결주택 매매건수 하락

- 지난 1월 28일(현지시간)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(NAR)는 지난해 12월중 미결주택 매매건수가 전월대비 4.3% 하락한 101.7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또한 11월중 수치는 기존 1.7%에서 1.6%로 하향 조정
 - 전년동기비로는 4.9% 증가, 시장 전망치 11.5% 상승을 크게 하회
- NAR은 주택 대출 비용 하락과 주택 가격 상승, 고용시장 개선으로 주택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, 주택 재고 물량 부족으로 기존주택 매매건수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
 - 한편 10만 달러 미만의 주택 물량이 미국 전역, 특히 서부 지역에서 부족한 상황으로 봄이 되면 재고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또한 당분간 공급자 시장(seller's market)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3) 미의회의 부채한도 한시적 연기 법안 통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저하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피치社는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3개월간 효력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최상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단기적인 위험이 제거됐다고 발표
 - 피치는 앞서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적절한 방식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
- 미국 하원은 지난 1월23일(현지시간)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3개월간 효력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음
 - 이는 미국의 채무한도가 2월중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5월 19일까지 3개월간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태국정부,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발표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태국총리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 개발에 약 660억 달러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기로 결정
 - 총리실은 기반 시설 투자 재원은 국내 및 국외에서 조달될 것이고, 민간 부문에도 다양한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을 촉구
 - 태국 정부는 조만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계획을 확정해 상하원의 승인을 받을 계획
- 주요 기반 시설 투자 계획에는 10개 전철노선 건설, 철도 복선화, 이웃 국가와의 교통망 연계 등이 포함
 - 특히 태국 교통부는 현재 2개인 방콕시내의 전철을 2019년까지 10개로 확대, 노선 확대를 통해 현재 80만 명 수준인 이용객을 오는 2019년에는 400만 명으로 증대할 계획

2) 일본정부, 보잉787 도입 전 안전규제 완화 구설수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은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민간항공국이 지난 2008년 3차례의 회의 끝에 새 항공기 출시를 위한 안전기준 가운데 40개 항목을 개정해 규제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도
 - 당시 회의에서 완화된 규제 가운데 5개 항목이 보잉787 출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남
 - 특히 4개 항목은 보잉 787기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, 당시 자문단은 드림라이너기에 정교한 기내 점검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 때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던 점검 규정에서 이 항공기를 제외시킴
- 해당 관계자들은 당국 자문단이 이처럼 규제 완화를 용인한 것은 운영비를 줄이려던 전일본공수(ANA)와 일본항공(JAL)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하버드大 경영대학원, MBA 랭킹 1위 등극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<글로벌 MBA 랭킹 2013>를 발표
 - 2013년도 최고의 MBA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선정, 전년도 랭킹1위인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을 제치고 최정상을 차지
 - 3위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, 4위는 영국 런던경영대학원, 5위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이 차지
-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UST 경영대학원이 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,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(51위), 고려대 경영대학원(86위) 등이 100위권 내에 선정

2) 도요타 자동차, 2012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등극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GM, 폭스바겐 등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보도
 - 블룸버그통신은 도요타자동차가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및 리콜 사태의 여파에서 빠져나왔다고 의미를 부여
-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해 계열사들의 자동차 판매를 합한 전체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무려 23% 증가한 975만 대를 기록
 - 이는 GM의 929만 대와 폭스바겐의 907만대 판매량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
- 한편 도요타자동차는 금년 판매 목표치를 991만대로 상향 조정
 - 북미 시장에서 캠리 인기와 함께 엔저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크게 신장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

3) 삼성, 애플과의 격차 축소 성공

- 지난 1월27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삼성이 다른 기술 기업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애플과의 격차 축소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도
 - WSJ은 삼성이 빼어난 기술력과 제조력,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제조해 매출과 소비자 기호 측면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 관계를 유지 해왔다고 보도
- 지난 1월25일(현지시간) 삼성전자는 지난해 4/4분기 당기수익이 매출 증대에 힘입어 17% 증가,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바 있음
 - 반면, 애플은 지난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정체된 실적을 발표한 뒤 아이폰5 수요 둔화 우려가 다시 증폭, 애플의 주가는 지난 한주 동안 15% 가까이 하락하며 미국 시가 총액 1위 자리를 1년만에 엑슨모빌에 내어준바 있음
-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8%로 전년 비 8% 증가한 반면, 애플의 점유율은 20.5%로 전년 19%에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